

社說

올바른 인물선출에 최선을 다하자

'총장후보 추천규정'확정에 부처

지난 19일 교수회 임시총회가 열려 '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을 확정지었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는 조급함이 이번 규정을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인지 아직 덜 다듬어진 부분도 많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그토록 염원해 왔던 모든 주체의 참여라는 것이 명목상 문제로 치리던 듯한 인상을 주어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

규정 제18조 1항을 보면 "투표 전에 적인대표와 학생대표에게 각각 총장후보추천의 선출에 관한 수렴된 의견개진의 기회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는 '임의규정'이다. 더구나 주는 주체가 교수회이기 때문에 학생과 직원의 능동적·적극적 참여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규정이 이렇게 정해지는 데는 간담회를 통한 교수·학생·직원대표의 구두합의가 있었다고 한다.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법이나 규정 등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여 서로간에 최소한 지켜야 할 부분을 정해 놓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정해진 규정내용은 최선의 판단을 가졌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재단은 이시점에서 총장선출에 관한 재단의 입장을 명확히 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중정스님의 이사장추대 움직임

실천력있는 논의로 활성화될 필요있어

첫눈이 휘날리는 지난 18일은 본교의 학원자주화에 대한 요구가 합쳐져 중정스님이 이사장으로 추대되기 위해 해인사를 방문했던 날이다.

지난 8월31일 부정부패사건이 가져다준 충격은 재단의 물적·인적구조 혁신의 파장을 남겨 놓았다. 재단이 갖는 본원적 의미는 사학이 학문공공성을 지향할 수 있도록 불특정 다수를 통해 안정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기본 과제이다.

본교의 특수성을 비추어 불멸의 유익의 중립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지원해야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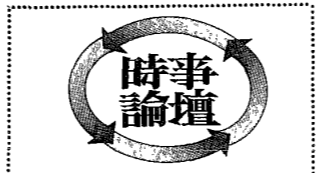
그러나 현 모습을 볼때 재단은 학교와 중단 양자사이에서 개성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고 중단에서 본교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권다툼의 쟁으로 개인의 명예욕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가시적인 독설에 대해 공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안과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요즈음 '중정의 이사장 추대론'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논거를 갖춘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부정입학'이 각계에 미친 충격은 말할 수 없이 컸다. 이 중정의 새로운 관계설정과 배를 짙는 재출발의 지지가 절실한 때이다.

국·사립 차별없는 교원공개임용 관철

교원종합대책안과 교육의 내일

오늘도 신문에는, 90년도부터 일반대학으로의 개편을 반대하는 공주사립대학 학생들의 농성이 1주일째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문교부가 주먹구구식으로 교원양성기관을 양산해 놓고는, 그 피해를 겪어가는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감마저 느끼게 된다.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금년에는 문교부가 참교육을 부르짖는 수천의 교육자들을 교육일선에서 내쫓았다, 교육계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일로에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문교부가 이번에는 "교원종합대책"이란 이름으로 다시 한번 교육계에 소용돌이를 몰고 왔다. 문교부가 내세운 이른바 "교원종합대책"이란, '교원공개임용'과 '국립사대·교대생에 대한 특별금지'를 그 골자로 하고 있다. 교원의 양성과 임용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는 어찌 오해가 비뚤어진 일이 아니고, 국·사립 차별임용을 없앤다는 문제 또한 논의되던 오래된 교육현안이

특례를 금지한다는 발상 또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교원종합대책이 시점에 갑자기 나온 것과 관련하여 문교부의 또 하나의 교육통제 장치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 종합대책이란 것이 교원 공개임용안과 국립사대·교대생에 대한 특별금지와의 함께, 이른바 사도장학금제의



金泰俊

(문과대교수·교정소실)

신설·교사 자격증 적격심사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의도에서도 충분히 예상되는 우려인 것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말하자면 전교조 운동의 열기에 놀란 문교부가 전교조성향의 교사들 학생시절에 원천봉쇄하겠다는

학원통제 방편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돼 교원양성-임용의 책임행정 펼쳐야

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교육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빈곤하고, 또 이미 기록권을 가진 국립사립대학들의 반발로 그치지 않는 문제를 포함한다는 점은 지나쳐 버릴 수 없다.

우선 교원 공개 임용 계획안은 국립·사립과 교직이수 일반대학 출신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준다고 하는 점에서 원칙적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공개 임용원칙을 제도화한다면, 국립사립대와 교육대생들에게 주었던

의도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것은 전교조에 관련된 초중고등학교 교사 수명명을 교육일선에서 증경하게 하고 관련된 고등학생까지 징계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나온 계획이란 점에서 더욱 의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사실 문교부가 지금껏 교육계와 학원문제에 대해 취해온 중책요법들을 보면, 140학점제 실험대학, 조기졸업제, 입학정원 30% 증원, 군사교육 의무화 등이 모두 학원 자율권을 통제할 의도로 계획된 것들이었다. 그리고 이런 계획

은 교육적으로 하나같이 실패한 정책이었고, 지금에 와서야 어느 하나 계속되는 것이 없는 시행착오를 뽐내었다.

문교부가 적체교사의 해소를 위한 원천임용과 같은 보다 시급한 문제를 제쳐놓고, 과거에는 관직조차 기술이치 않은 사립대학·교육대생의 장학제도 개선이나 교원 적격심사같은 계획에 칼자루를 휘두르겠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속이 들여다 보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교육 백년대계 보다는 역대 정권에 아무런 정책의 시너로 종래와 같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문교부는 무엇보다도 교육적이고 몇몇한 문교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문교부가 시행해 온 주먹구구식 교원양성정책은 교원의 수급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미구잡이로 인가한 사립사립대학의 증설이나, 미발행 교원적격사 시험문제화현 상태에서 교원대학을 무리하게 세운 것과같은 보기만으로도 한심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문교부의 정책의 빈곤함을 말할 때는 아니고, 근본 문제는 반대잡다고 초가 삼간 다투는 것과 같은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국립사립대와 사립사립대의 차별을 없애고 공개임용한다는 원칙은 좋은 계획이다. 그러나 국립사립대학졸업 교원의 의무임용이나 교원적격 해소에 대한 책임회피가 뒤따르는 무모한 계획의 강행이라면, 이것은 애초부터 잘못된 발상이다. 미발행 교원의 적격 상황에서 들끓는 여론을 묵살하고 교원대학의 설립을 강행한 정부와 문교부가 이번에는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는 공주사립대학을 일방적으로 개편하려는 의도 또한 마찬가지로 잘못되어 있다.

적체교사의 해소를 기피하고 사법대학을 없애기보다는, 교육제와 같은 교육정책을 정상화하여 법정교원수를 확보하고, 아직도 학급당 60명 선에 머물러 있는 풍나부교실을 없애려는 노력이 백백 타당하다. 사립대학 학생 협의회가 낸 자료에 따르면, 법정 교원수만 확보하여도 88학년도 기준으로 3만8천6백22명의 교원이 더 발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도 한학급당 학생수를 50명기준으로 줄였을 때 88학년도 기준으로 중학교에서 1만9천9백70명의 교사를 더 쓸 수 있다. 주요한 외국나라들의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하여 국민학교 32.5명, 중학교 31.1명, 고등학교 28.9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실정은 아직 60명을 줄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리 고쳐서도 중국이나 선진국 대열이냐고 따지는 사람은 사립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거나 아니면 분명 거짓말쟁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번 교원종합대책이 정부나 문교부의 학원통제의 강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교육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일임을 유념해야 한다. 사립대학·교육대생에 대한 기록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사립 사립대학의 차별없는 공개임용은 관철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예비교사에 대한 통제권의 강화의 방편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자율권을 통제 받고 자란 사립대학 졸업생이 유능하고 창조적인 교사가 될 수는 없다.

문교부는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양성된 임용의 책임행정을 통하여 교육 백년대계를 열거하라. 이것이 교육일선의 기록권 교육현안을 보완하는 교육정책이기도 할 것이다.

으로서 현행 진행되고 있는 대학기마다 치르는 중간고사를 폐지하고 기말고사만으로 학습능력을 평가하였으면 한다. 대신 대학기 중간고사 기간에는 학생들의 자주적인 학습과 더불어 심오한 학문의 탐구를 위해서 report(과제), 논문 등의 형태로써 보완하였으면 한다.

이현규 (사립대 국어교육과)

학기대대 시험에만 얽매어

현행 시험기간과 제도에 관하여

을 써낸 날씨가 이상해진 나뭇가지들이 교정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중앙 도서관에서는 중간·기말시험 준비로 많은 학생들이 붐비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89년의 겨울방학이 한 달 정도 남았으나, 아직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은 각과 학생들의 발걸음은 무겁게만 보여진다. 더구나 중간·기말 시험 기간의 겹침은 그 기간의 촉박으로 인해 충분한 학습능력을 학생들이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학교행정에 대한 불만과 시험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다.



의 시험기간에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즉자적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는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시험기간의 겹침과 더불어 학습한 report(과제)는 "대학은 학문의 상아탑이다"라는 말을 무색하게 한다. 진정대로 대학이 학문의 상아탑으로서 존재하고자 한다면 학교당국은 학생들이 자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시험기간을 규정해야 한다. 동시에

현행의 시험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강가에 대한 시험에 있어서 단순한 서술식, 문답식의 중간고사는 불합리한 제도의 모습을 보여준다. 매 학기마다 시험기간에 도서관은 많은 학생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벼서 좌식을 확보하는 것은 서술에서 선택 별 대한 것과 같을 것이다. 반면 중간고사 기간이 지난 뒤 도서관은 한산하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자주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시험형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시험형태 및 방법의 올바른 방향의 개선은 학생들에게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문의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며, 교수에게는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올바로 평가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적인 의견



88 봄 89 겨울

공 고

1990학년도 교육실습 제도 변경에 따라 교육실습 신청자중 대상 실습학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학생을 우선하여 교육실습 희망학교에 배정코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대상자: 사대 및 교직과정 실습신청자(사·지방 공통)
- 동의서 배부 및 접수기간: '89.11.5 - 12.22
- 동의서 배부 및 접수처: 사대 교학과 및 이부대 교학과

사범대학장

공 고

1990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

- 기간: '89. 11. 29(수)~12. 1(금) 3일간
- 신청서교부 및 접수: 소속대학교학과 및 학과
- 대상: '89학년도 제2학기 재학생전원(4학년 제외)
- 유의사항

가. 교과목의 학수번호, 강좌번호, 학점, 담당교수명 등은 정확히 기재해야하며

나. 본 수강신청에 의해 분반 및 폐강과목이 결정되므로 필히 기간내에 전원수강신청을 하기바람.

다. 수강신청정정은 분반 및 폐강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불허할 방침이나 신청을 기하기바람.

라. 개인별 종합강의 시간표는 소속학과에서 교부받기바람.

교무처장

'89 동계 외국어 특강

외국어교육원에서는 '89동계 외국어 특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학생들의 많은 수강 신청을 바랍니다.

- 다 음 -

과목	강사	시간	강의실
ACADEMY TOEFL	손영찬 (전 고대 강사)	09:30-10:50	동국관 501
VOCABULARY & 영 어 순 해	윤희수 (전 외대 강사)	09:30-10:50	동국관 301
이 재 목 TOEFL	김남주 (전 흥대 강사)	11:00-12:30	동국관 301
박 식 원 일 분 어	윤호숙 (현 동대 강사)	13:00-14:10	동국관 301

- 강의시간: '89. 12. 18-'90. 2. 16.(월-금)
- 접수기간: '89. 11. 27-'89. 12. 18.
- 수강료: 4,000원
- 접수처: 외국어교육원 사무실, 구내 서점

동국대학교 외국어교육원

The Korea Herald

英 日 直 營
日 刊 紙

신문구독신청 ☎ 778-4388, 778-0834

외국어특강

개강 ▶ 12월 1일

英語·日語

中·佛·西·露·獨語

- 코리안 헤럴드 社說
- 영문해석
- 동시통역 대학원입시반
- 기초영어
- 고득점 TOEFL 종합반
- 성문종합
- AFKN 스크린 합동
- 기본영어
- Vocabulary 22,000
- 실력기초

TOEFL

아카데미 L/C TIME

- 생활 영어 회화 DIGEST
- Practical English · Stream Line
- Spectrum English · English Alive
- 美國人會話 ■ 일본어(박성원 I, II)
- 日本人會話 ■ 일본어 SCREEN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옆 757-0419

국제 스튜어디스 모집

국제선·국제선 비행 AIRLINES에
전문 취업을 목표로 TRAINING 전문

지원자격

- 196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 신장 162cm 이상의 미혼여성
- 나안시력 0.4 이상인 자
- 4년제 대학졸업 (예정) 자
-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 또는 전문대 졸업 (예정) 자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사진 부착·우측 상단에 연락 전화번호 표기) 1매
- 사진: 4.5cm x 4.5cm 1매

본원의특징

- V.T.R. 폐쇄회로 설치
- BEHAVIOR TRAINING
- 면접요령 훈련강화

접수문의

(代) 338-2244

STEWARDESS TRAINING 전문 국제외국어 학원

· 신촌로터리·홍대백련 우우 APT 입구
주소: 마포구 창전동 5-76

재벌들의 논리에 승복한 '고육책'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지난 14일 정부는 '경제사회 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당면정책'이란 이름하에 몇가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그 주요 내용은 수출금리의 1% 인하, 1조원에 이르는 특별설비자금의 장기·저리융자, 환율의 절하유도, 특별외화대출의 확대이다. 한편, 경기침체의 원인을 노동자들의 '자기똥칠기'에 있다고 전제 한 뒤, 공권력의 조기발동 등 노동대책도 마련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경기침체의 원인과 처방이 뒤바뀌었다는 인식하에 한국경제의 현황을 역사적·비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진지자)

I. 위기의 두 측면

'한턱이 붙었다'던 한국경제는 이제 '발병이 난' 한국경제가 되어 버렸다고 아우성이다. 세계경제의 호황이라는 조건 속에서 비약적인 생산의 확대와 국제수지흑자를 누려왔던 한국경제는 내외적인 자본축적조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새로운 국면이라는 것은 지난 86~88년의 경제상황과 비교해 볼때 현저한 차이가 나는 데서 누구나 동의할 터이지만, 이러한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당한 혼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변화의 현상적 징후들은 생산의 수축과 무역수지의 악화, 신용구조의 불안, 물가의 상승과 각종 비생산적 영역의 확대와 투기의 성행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적 징후들은 결국 첫째는 높은 대외의존과 수출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자본주의의 자본축적, 재생산구조의 위기로 표현할 수 있고, 두번째로는 대중의 경제생활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위기적 측면에 관해서는 정부와 자본측 내부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둘러싸고 이견이 대립해왔지만, 이제는 '위기'라고 합의한 듯 '정부와 자본가다운' 대응을 연거푸 발표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14일의 4부장관 합동기자회견과 '경기종합대책'의 발표, 그리고 같은 날의 강경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차관장관회의, 또 16일의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의 공동기자회견과 전국경제단체협의회(전경협)의 결성발표등 일련의 일들은 그 진의와 전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응의 본질은 요약컨대 현재의 한국경제의 위기의 원인을 철저하게 임금인상투쟁과 민족민주운동에 전가하고, 이 원인을 '적절하게' 진압만하면 또다시 탄탄대로의 자본축적의 궤도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후자 즉 대중의 경제생활

의 압박측면은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순환과 함께 진행되는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진행, 실업의 확대에 따른 생활의 압박을 지적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것들은 그간의 임금인상의 효과를 집어삼켜 버림에 따라 실질임금의 감소로 나타나게 되고, 부동산 투기, 전세금과 임대료의 상승, 생필품가격의 인상등을 의해서 그 정도는 증폭되어 나가고 있다.

II. 정부와 자본의 대응

이러한 과정은 무엇보다도 민족민주세력의 비약적 성장·진출과 함께하고 있는데, 지난 14일부터 16일 사이에 진행된 정부와 자본의 일련의 짜여진 일들은 기본적으로 민족민주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공동보조와 강경대응, 나아가 탄압의 전일적비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9일 현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대국민호소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종합대책은 후자의 길(국민의 자기못 실현을 한치라도 자제, 안정기조를 확보하는 길(인용자))을 통해 우리경제를 회생시키자는 것이다. 금번 종합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고임금, 고평가, 저성장, 저투자를 단절한다는 것이다"라고.

그는 당시의 한국경제를 '조정국면'이라고 평가하고 위기상황으로 보는데에 대하여 반대했기 때문에 '자기똥칠기'는 물가상승과 안정에 대한 지혜로운 대응이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제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일으켰는데 소위 '자기똥칠기'는 저성장의 고리가 아니라 한국경제를 '요지경'속에 빠뜨린 위기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그의 현실인식의 전환은 크게 자본측의 집요하고 끈질긴 '철독'으로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여하튼 정부와 자본은 총력을 동원하여 임금인상과 노동대중의 진출을 막지 않으면 안된다고 결의하였다. 이에 대해서 임금인상과 노동투쟁이 물가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원

III. 뒤바뀐 원인, 전도된 결과

현재의 한국경제의 위기가 정부와 자본 그리고 관련 이해세력들이 주장하듯이 민족민주세력의 투쟁에 의해서 오게 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전면적으로 탄압한다고 해서 호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경기침체에 대한 진단과 처방 '따로 놀아' 예측구조가 낳은 위기 노동자에 책임전가

민족민주세력을 분쇄해냄으로써 반노동자전선을 형성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감춰져 있다. 그것은 한편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제법칙과 경기순환, 그리고 임금의 상호관계를 '자꾸로' 설명함으로써 그 진정한 원인을 은폐하고 그 책임을 근거없이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감춰져 있다. 특히 지난 16일의 한 국경총(韓國總經)을 중심으로 한 경제 6단체가 '전경협'을 결성하여 민족민주세력에 공동대응기로 한 것은 이러한 본질의 극명한 모습의 하나이다. 이날 회견에서 부각되었던 것은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전노협(全勞協)의 결성과 민족민주운동의 확대강화에 대한 대응이다.

왜냐하면 최근의 한국경제의 위기는 자본주의적 생산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성격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좀더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최근의 한국경제의 축적과 과정을 개략적으로 더듬어 보자. 가장 가까운 경기후퇴의 경험으로서 79, 80년의 공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적 재생산은 불가피하게 생산의 확대와 수축이 라는 순환을 반복해 왔는데 79, 80년의 공황은 74, 75년의 공황에서 갖 벗어나 세계경제가 다시 회복해나감에 따라 한국경제도 호전되어 가는 직후 다시 엄습하였다. 당시의 정부와 자본 그리고 언론매체를

중반경부터 세계경제는 서서히 호황으로 진입하였으며 그것은 소위 3자라는 조건으로 촉진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경제는 주로 국제통화제도, 무역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발생한 조건중에서 가장 크기는 달러에 대한 상대적 저평가가 힘입으면서 급성장을 이룩하게 된다. 그러나 원화의 상대적 저평가는 87년말 이후 급격히 반전되면서 상황이 변화되어왔고 덧붙여 다방면에 걸친 무역역력이 가해되면서 자본축적의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어 왔다. 이러한 조건 변화는 더욱 89년에 들어서자 축적의 위기로 현상하게 되었고 그러한 정황은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그대로이

두번째는, 이러한 총괄적인 위기는 그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국가독점적 경제정책에 의해서 더욱 격화되고 있다. 국가의 위기에 대한 대응은 본질적으로 독점자본을 위한 정책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것은 중소·영세기업의 퇴락과 교체를 수반하고 광범한 대중에게로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과정이다. 특히 위기에 필적하는 정부의 재정·금융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경기부양책'은 경제를 독립적으로 재편성하고 경제의 자기조정과정을 왜곡시킬뿐 아니라 경제의 침체상태를 장기화시키게 된다. 이른바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현대자

다. 2) 하지만 한국경제가 갖는 중속성, 그리고 외적 규정력에 강고하게 얽매어 있다는 사실에서 환율과 시장개방 그리고 가격조건의 변화는 한국경제를 위기의 국면으로 내몰기에 부족하지 않았지만 결코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원화의 절상으로부터 한국경제가 가격경쟁력을 위협받게 되었고 생산의 축소가 시작되는 계기인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최근의 위기의 진전은 그러한 조건에 촉발되면서 국내 경제생산 구조자체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87~88년은 한국경제 역사 생산의 비약적인 확대와 고양기에 속해있었지만 최근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는 외적요인들의 압박이 진행되는 과정에 내적 축적메카니즘이 결합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몇가지 지적하자면 그것은 첫째,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확대국면에서 수축국면으로 이행과정은 자본의 이윤율감소와 함께 투기부흥과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이전을 촉진하면서 경제현상을 왜곡시켜나가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자본에게 축적의 곤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그것은 또 여러경로를 통해서 대중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뒤바뀐 원인, 거꾸로 선 진단은 대중의 회생위에 선 독점자본중심의 이익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및 물가, 투기등의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순환과 밀접할 수 없는 관련을 지닌 임금인상투쟁은 그러한 경제적 조건과의 악화에 따른 근로대중의 생활악화로부터 연유한다. 다시말해서 임금인상은 현 경제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 것이고 이 결과를 원인으로서 전도시키는 그 본질은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탄압에 함해져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전개되는 자본축적의 진행과 산업구조의 재조정과정은 불가피하게 노동투쟁의 강화와 독점대벌벌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한 재정·금융정책, 금융세제지원을 강화시키는 과정일 것이다. 동시에 이 과정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재생산구조를 독립적으로 재편성하면서 중소·영세기업과 대중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은 한편 사회적 긴장과 대립을 한층 격화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의 수축과 무역수지의 악화, 신용구조의 불안, 물가의 상승, 투기의 성행등 한국경제의 현상적 징표들은 결국 대외예속성과 수출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있는 한국자본주의의 자본축적, 재생산구조의 위기로 표현할 수 있다.

본주의의 고질적 불치병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경제종합대책에서 제시된 금리, 환율, 통화, 금융세제 정책등에서 나타난 바대로 그 밑바탕은 독점자본의 자금부담을 덜어 '성장엔진을 재가동시키겠다는 것이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는 이에 대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조치라면서 거듭 원화의 재평가와 금리의 추가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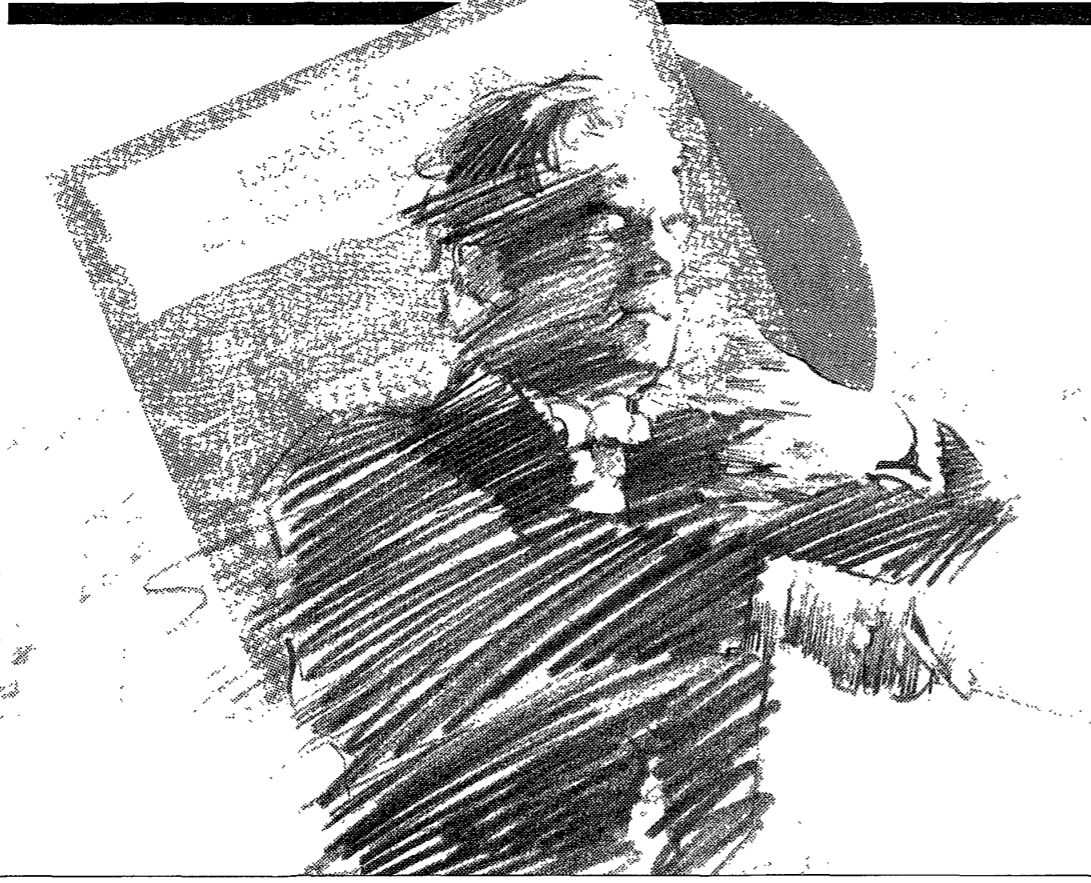
이러한 내적인 조건들은 더우기 드센 미국의 통상무역역력과 세계경제 여건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과 결부되어 지난 한국경제의 고성장을 폭소리 높여 선전하던 것으로부터 그들 스스로 '위기'라고 진단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위기는 노동자의 민주적 권리의 쟁취를 위한 투쟁의 확산과 임금인상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산업평화만 정착한다면 금리인하등과 같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없어도 기업의 자생력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산업평화는 결코 노동자에 대한 탄압에 의해서 쟁취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산업평화는 노동자에 의한 민주노동의 단탄한 건설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는 것이며 무조건 상태가 야기하는 중공과 자본주의적 임금노예로부터는 자본가적 횡포와 독재의 독바섯이 자라날 뿐이다. 더구나 산업평화는 누구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있는가.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전개되는 자본축적의 진행과 산업구조의 재조정과정은 불가피하게 노동투쟁의 강화와 독점대벌벌을 중심으로 하는 광범한 재정·금융정책, 금융세제지원을 강화시키는 과정일 것이다. 동시에 이 과정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재생산구조를 독립적으로 재편성하면서 중소·영세기업과 대중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은 한편 사회적 긴장과 대립을 한층 격화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정혁기 (민족민주운동연구소·경제분과)

삼성의 재벌전 ⑤ - 인건증

“아마테우스! 기다려라, 내가 간다!”



다섯시 오십오분. 다른날 같으면 모두 일에 빠져서 정신없이 뛰고있을 동료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빨리들 일을 끝내놓고 술을 따근한 준비들을 하고 있다. 오늘은 “바른 퇴근의 날” - 정식 퇴근을 철저히 지키는 날이다. 최장원 선배는 몇몇 동료들과 불평장으로 직행할 것이고, 김은영씨는 애인과 데이트가 있는지, 못다 끝낸 일을 마쳐 마치고 유난히 서두르고 있다. 나는 - 오늘, 볼프강 아마테우스 모짜르트와 만나기로 되어 있다. Symphonie Nr. 40 g-moll KV550, 그의 제40번 G단조 교향곡, 그안에 숨겨진 비극적이면서 병적인 그의 내적 비밀을 캐어보기로 작정한 것이다. 근무시간에는, 다른 생각을 않고 근무강도를 높여 일한 덕에, 정식 퇴근시간 전에는 이미 오늘의 일과를 정리할 수 있었다. 이제, 여섯시 정각! 지금으로부터 한시간쯤 후면, 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마테우스와의 해후를 나누고 있을 것이다. “아마테우스! 기다려라, 그때의 빈민을 내가 위로해 주마!”

바른 퇴근의 날 -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인재를 소중히 하는 삼성의 인건증 기업인, 이를 실천해 가는 의지표현의 작은 부분입니다.



마지막회 통일전선에서 요구되는 문제

1. 통일전선이란 무엇인가?

통일전선이란 말 그대로 변혁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같이하는 모든 계급, 계층을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묶어 계급, 계층을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묶어 세워 지배세력의 집중적인 공권력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바를 달성하는 조직적 틀을 말한다. 그러므로 현 한국사회를 잘 알고 변혁의 과정을 분명히 인식할 때 어떤 계급, 계층을 통일전선에 묶어 세울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먼저 한국 사회가 계급주의의 지배하에 있는 식민지 종속 사회임을 재확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계급주의를 몰아내는 민족해방의 과제와 계급적 억압을 해설해야 할 과제, 그리고 분단된 한반도를 잇기 위한 과제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단과 식민지배, 계급적 억압과 계급적 억압을 지행하는 계급주의의 세력, 계급주의에 빌붙어 민중을 억압, 착취하는 테러정치자들을 무너뜨려야 한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첫째, 노동조합, 농민조합, 소자산계급의 협회등과 같은 각계급, 계층마다의 조직이 필요하다. 이것은 그 계급, 계층이 지배세력의 억압과 착취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고 단결되어 나아가는 초보적이며 대중적인 단체의 성격이 있다. 각계급, 계층은 이 조직을 통하여 초보적인 계급적, 민족적 의식을 각성 고양시키게 되며 자신의 삶에 대해 자각하고, 주인된 자세로 임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앞에서 말한 통일전선 조직이 필요하게 된다. 통일전선 조직이 요구되는 것은 조합조직 같은 초보적, 대중적 조직 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광범위한 초보적, 대중적

을 보이며 대중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고 있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전위조직이 옮겨 건설되기 위해서는 전위조직 주위에 대중이 결집되어지고 분분해져야만 실질적인 전위조직이 건설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3가지 조직 건설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이속에서 전위조직이 분분히 건설되기 위해서는 통일전선조직과 초보적 대중조직 속에서 지도핵심이 준비되고 그를 중심으로 각계급·계층대중이 강하게 통일, 단결 될때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민족민주세력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대중조직을 분분히 꾸리고 대중적 정치조직인 통일전선을 강고하게 꾸려나가는 일이다.

가지고 투쟁에서도 선봉에 서서 가장 철저하고 용감하게 싸우게되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등 3대 주력군의 강화 발전을 중심에 놓고 소수상인, 민족기업가, 민족지식인, 여성운동등 보조역량을 연대시켜 나갈때 통일전선은 분분히 꾸려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주력군을 이루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운동이 민족해방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선봉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보조역량을 이루는 계급, 계층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초보적 대중조직들을 기반으로하고, 노동자계급의 영도성을 받아들이면서 통일전선 운동이 주력군으로서의 지위를 당당히 차지하고 있는 청년학생들은 무엇 할 것이며 무엇을 무기로 하여 전체 민중과 함께 자주, 민주, 평등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것인가를

~80%에 농민회등의 대중조직을 결성, 강화 시켜가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 농민의 진출은 민족해방투쟁에서의 승리가 필연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농민들의 이러한 대중적 진출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동자·농민을 결집시키는데 그 조직적 힘이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노동의 영향력을 받는 조합원이 아직 상당수며 전체 2천5백만 생산직, 사무직, 전문직노동자를 생 각하면 노동자 대중조직의 강화 발전은 산적해 있는 과제다.

농민 또한 농민들의 진출이 도청과 군청, 나아가 미체에 대한 투쟁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고 있어 매우 무력적이라 할 수 있지만 아직 그 조직역량을 더욱 분분히 꾸려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 ### ◇클 신는 차례
1. 반미 자주화에서 제기된 문제
 2. 조국통일 운동의 성과와 한계
 3. 노동운동과 전위당 건설
 4. 통일전선의 문제

4. 청년학생의 과제

청년학생은 어떠한가? 청년학생 정권의 침탈로부터 보위해 내고 있다.

청년학생이 '발과공'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게 된다고 했을때 통일전선을 형성해 나가는데도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임무가 주어진다.

청년학생은 청년학도 모두를 주인공으로 세우고 이것을 힘으로 하여 노동자, 농민과 일사적, 정치적 연대를 드높여 나가 통일전선의 기초를 확고히 다져나가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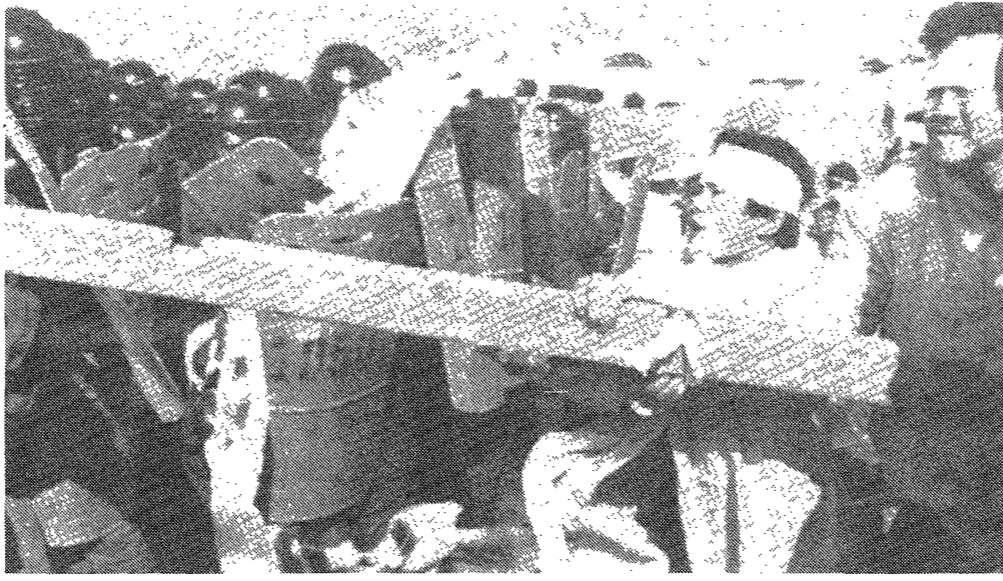
그러나 학생운동 일부에서는 대중을 주체로 세우는데 소홀함은 물론 사고상의 편향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것 같다.

청년학생들이 주력군으로서 투쟁의 선봉장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학생 전체가 투쟁으로 일어 설 수 있도록하고 바로 이것을 무기로 전체 노동자 농민들과 연대하여 통일전선의 기초를 분분히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청년학도의 모범적이고 선도적활동은 곧 노동자, 농민과 '선봉장'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87년 이후 대중노선에 임각하여 대중을 주체로 세우기 위한 헌신적 활동은 88-89년을 경과하면서 학원을 분분히 미국과 노태우

통일전선 주체역량의 우위 보장하는 틀



◇ 통일전선의 확고한 기초를 다지고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자·농민·학생운동에서 각 대중을 주체로 세워야하며, 서로간의 대중적 연대사업을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80년대 변혁운동 점검 전진 그리고 승리

바로 이를 위해서 주체적 역량의 압도적 우세를 보장하고 민족해방운동의 승리를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통일전선이 요구되는 것이다.

여기서 반제통일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면 변혁을 승리로 장식하기 위해서 끝까지 형성하여야 할 과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저급당장 반체제 투쟁 구호를 내걸고 있는 계급, 계층만을 묶어 세우려는 것은 결코 이해해서는 안된다. 또한 통일전선을 계급적 통일전선으로만 도식적으로 구분하여 형성할 경우 비록 자본가라 할 지라도 민족적 억압을 받고 있는 계층과 여타의 세력이 대항하여 방기하게 되어 당면 변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시킬 수 있다. 아울러 통일전선을 경제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경제적, 운동하는 것으로 인식 한다면 현재로서는 동요하고 불철지한 세력이지만 민족적 억압을 받고 있는 계급, 계층과 적극적 연대를 모색하여야 한다.

의 조직과 싸워 이겨 나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권력과 대항하여 승리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공권력에 대항 승리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민중을 포함하는, 대중적 토대를 가진 각계급, 계층의 조직적 집중체인 통일전선이 절실한 요구 받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전선의 성격은 남한 사회 속에서 반합법적이며 '대중적인 초보적 정치조직'의 성격을 갖게 된다.

세계는, 광범위한 초보적, 대중적

대중조직-전위조직과 "삼위일체" 이뤄 계급별 도식적인 구분...전선 축소 초래

2. 조직건설의 문제

민족적 억압과 계급적 억압을 받고 있는 계급, 계층이 통일전선의 과제에 대하여는 이해를 같이 하지만 그 계급, 계층이 받는 억압의 정도에 따라 이해의 수준의 차이가 날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잘 실현하고 흔들림없이 당면 변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일전선 뿐만 아니라 각계급, 계층의 이해를 담보할 대중조직과 이를 통일적으로 지도할 전위조직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식민지 종속국 사회에는 크게 보아 3가지 조직이 필요하다.

조직과 통일전선 조직을 지도하기 위한 전위조직이다. 전위조직은 비합법적으로 건설, 존재하게 되며 민족적, 계급적 억압에 반대하여 변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데 가장 절실한 요구를 가진 영도계급의 영도성을 기본으로 하게된다. 따라서 근로민중 특히, 노동자계급의 가장 절실한 정치적 요구이다.

이들 세조직은 식민지종속 사회 속에서 어느것 하나 없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건설해야 할 조직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민족민주세력 내부에는 어느 한조직에 대한 일방적 준비 또는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외대부분은 전위조직만을 강조한채 초보적 대중조직과 통일전선을 간과하는등의 편향된 모습

3. 통일전선운동의 현황

이부분에 대하여 잘 고찰하기 위해서는 통일전선의 중심부인 주력군의 현재역량과 연대 수준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 해야 한다.

노동운동은 87년 7.8.9월 대투쟁을 거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또한 농민운동은 89년 2월 13일 '여의도 농민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그동안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던 '수세매진', '수입방저지투쟁'과 '농축산물 제값받기 운동'의 확산을 매개로 하여 그 조직적 역량을 가속화 시켜왔으며 전국 군단위중 70

살펴보도록 하자.

노동자, 농민의 조직화 의식화를 더욱 대중적으로 전개하여 대중조직을 강화하는 것에 주목한다면 선부르게 현재의 역량으로 모든것을 다 하려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면 현재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조직 대중과 어울리면, 단체 노총에 영향을 받고 있는 대중과 분리되고 심지어 현재 노동자, 농민들의 비약적 발전을 보수·혁신의 논리로 분리를 시키는 미국과 노태우 정권의 위해 공격에 밀려들어 노동자와 노동자의 대결등으로 조직의 이완과 노동, 농민운동의 대중화에 걸림돌이 될것이다.

그러므로 대중적 조직의 강화를 주목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해 들어

東 東 路

"중정예하! 학교발전에 온 힘을 불사르고 있는 저희 학생들에게 동공의 발전에 대한 획기적인 전망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8일 오후 본교생 69명은 중정기념당이 안겨고 계시던 백련인들에서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재단혁신'에 관한 법회를 열었다.

이번 중정기념당 방문의미에 대해 학자투위원장 강병득(미술·3)군은 "반드시 중정기념당이 이사장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의 규모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재단혁신의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는 학교버스를 이용하여, 총무처와 학생처에서는 서로 일을 미루며 "학생들이 나서서 해결할 일이 많다"는 등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결국 학생들은 18일 새벽 1시경에 가까스로 전세버스 한대와 봉오차 2대를 빌려 나누어 타고 밤새 차를 달려 오전 7시에 해인사에 도착했다.

(이 진형기자)

함께 풍요를 나누시다

두산그룹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우리 모두의 내일을 생각합니다.

항상 새롭게 도전하는 자세와 기쁨이 이루어내는 집념. 그러나 이루어 내는 것보다 더 큰 것은 함께 나누어 갖는 기쁨입니다. 기간산업 분야에 기업들의 힘을 집중해 나가고 소비재 분야에 기업들의 신뢰를 지켜가면서 생활을 더욱 풍족하게 하고 그 풍요를 함께 나누는 일. 두산그룹은 무역, 건설, 기계, 전자, 출판, 식품, 농축산 분야 등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풍요를 생각합니다.

인화를 바탕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 **두산그룹**

'전학대회'로 대중기반 총학건설 기약



▲사회=동국발전의 걸림돌이 될 총장선거를 앞두고 6월선거에서 11월선거로 차츰 전향하는 가운데 실시되는 선거라 자체가 남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이자리를 통해 자신들의 임명과 견해를 경주 7천 학생들에게 직접 밝힌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마동기부터 말씀해 주시죠.

▲배준식=그동안은 학원이 소수 운동권 학생들의 전유물이 되다시피 했고 진정 학생대중이 주인되는 조직으로서의 총학이 아쉬웠습니다. 저희 기호 1번은 학우들의 복지와 권익옹호에 앞장서며 정치투쟁에서도 대중성을 담보하게 하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강순호=6대 선거 때 현총학 지지 언설자로서 6대가 사업상 적지 않은 오류를 범할 때마다 책임을 통감해왔습니다.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물론 민중민주 총학건설을 건설했던 1만학우 및 노동자농민과 함께

느낍니다.

▲이정만=과, 단대의 독자적이고 특수성에 기반한 역량확보와 이들과의 유기적 결합을 토대로 사업 수행을 해나갈데도 6대총학은 하부조직을 추동시키지 못해 고립되다시피 했습니다.

▲이정만=1, 2번 후보님이 잘 지적해 주셨지만 6대총학이 그렇게 된다는 비민주적인 간부 인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그러한 오류를 극복하고 출마의 포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총학생활을 어떠한 모습으로 건설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배준식=소수만의 총학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대중들의 의견을 총신하게 반영시키는 일이 중요하며 학생회비가 총학, 특별기부, 각단체 학생회등에만 배분되던 것을 과학생과 강화를 위해서라도 각각까지 분배시킨 뒤 이를 전체사업에 동참시켜 효율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이정만=덧붙여말하면,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업을 수행하여 일반학생들의 무관심을 제거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고 새후보층 어느 조가 당선되면 집행부 인선과정에 모두 참여하여 가장 적

무능총학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배준식=공개적인 학생회 운영과 함께 전체 학생의 의견을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로 모아내고 지나친 정치투쟁 편향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반미구국투쟁과 학원자주권 쟁취투쟁 및 복지증진 투쟁을

하여 의결해나간다면 충분히 역할을 수행해 낼 것입니다.

▲강순호=학원은 존속되어야 한다고 기호3번에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힘이 총학으로 결집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과를 대표하는 학회장들의 모임인 학원으로 의견이 모아지기도 하는 폐단이 있을

수. 문화측면의 역할을 수행해나가는 것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사회=그 점들은 각후보가 대동소이 한 것 같습니다. 과학생과 역시 각후보가 강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강순호=학생총회의 의결권을

결합을 강화시키는 의미에서 부수별 연석회의가 상설화 될 필요도 있습니다.

▲배준식=방금 '전학대회'가 과학생과 이상의 대표자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참석하는 대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기호 3번은 1번과 마찬가지로 학과 대표로 국한시키지 않고 누구나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본교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학내 문제들

▲강순호=급년에는 가깝게는 풍산금속, 울산 현대중공업등지에서 노동자들의 엄청난 힘이 분출되었고 여의도 농민 시위, 전국농민대회 등 농민들 역시 강력한 투쟁을 벌였으나 과학적 정세분석이 미비해 전반적으로 학생운동이 낭만적 통일운동에만 그치고 탄압의 빌미만 제공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이 속에서 경주캠퍼스는 고립을 벗겨내지 못했고 지역적 노학, 농학 연대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고립 극복과 학원투쟁을 경주 포항지역 민중운동 세력과 연대해서 전개하고 대경총련을 민중민주총련으로 이끌고 민화련을 건설하는 것이 지역연대의 극복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정만=1, 2번 양측 후보가 표방하는 비와 같이 각각 '반미구국' '민중민주'로 두 후보는 노선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노선 싸움보다는 4천만 민중

실	사회	(정)	(부)	(부)	(부)	(부)	(부)	참석자
17일	이정만 (국사·3)	배준식 (경제·3)	기호3번	이정만 (미술·3)	강순호 (조정·3)	기호2번	배대진 (영문·3)	기호1번
18일	이정만 (국사·3)	배준식 (경제·3)	기호3번	이정만 (미술·3)	강순호 (조정·3)	기호2번	배대진 (영문·3)	기호1번
19일	이정만 (국사·3)	배준식 (경제·3)	기호3번	이정만 (미술·3)	강순호 (조정·3)	기호2번	배대진 (영문·3)	기호1번
20일	이정만 (국사·3)	배준식 (경제·3)	기호3번	이정만 (미술·3)	강순호 (조정·3)	기호2번	배대진 (영문·3)	기호1번
21일	이정만 (국사·3)	배준식 (경제·3)	기호3번	이정만 (미술·3)	강순호 (조정·3)	기호2번	배대진 (영문·3)	기호1번
22일	이정만 (국사·3)	배준식 (경제·3)	기호3번	이정만 (미술·3)	강순호 (조정·3)	기호2번	배대진 (영문·3)	기호1번
23일	이정만 (국사·3)	배준식 (경제·3)	기호3번	이정만 (미술·3)	강순호 (조정·3)	기호2번	배대진 (영문·3)	기호1번
24일	이정만 (국사·3)	배준식 (경제·3)	기호3번	이정만 (미술·3)	강순호 (조정·3)	기호2번	배대진 (영문·3)	기호1번
25일	이정만 (국사·3)	배준식 (경제·3)	기호3번	이정만 (미술·3)	강순호 (조정·3)	기호2번	배대진 (영문·3)	기호1번
26일	이정만 (국사·3)	배준식 (경제·3)	기호3번	이정만 (미술·3)	강순호 (조정·3)	기호2번	배대진 (영문·3)	기호1번
27일	이정만 (국사·3)	배준식 (경제·3)	기호3번	이정만 (미술·3)	강순호 (조정·3)	기호2번	배대진 (영문·3)	기호1번
28일	이정만 (국사·3)	배준식 (경제·3)	기호3번	이정만 (미술·3)	강순호 (조정·3)	기호2번	배대진 (영문·3)	기호1번
29일	이정만 (국사·3)	배준식 (경제·3)	기호3번	이정만 (미술·3)	강순호 (조정·3)	기호2번	배대진 (영문·3)	기호1번
30일	이정만 (국사·3)	배준식 (경제·3)	기호3번	이정만 (미술·3)	강순호 (조정·3)	기호2번	배대진 (영문·3)	기호1번
31일	이정만 (국사·3)	배준식 (경제·3)	기호3번	이정만 (미술·3)	강순호 (조정·3)	기호2번	배대진 (영문·3)	기호1번



좌로부터 기호3번 배준식, 이정만, 기호1번 배대진, 강홍규, 기호2번 강순호, 이종헌

▲사회=에, 세후보 모두가 대중성을 담보하려는 뜻에서 '학생대표자 회의'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를 각자 설명해주시고 가끔 논란의 대상이 되는 학원 그리고 각학생기부와 어떻게 연계해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이정만=총학을 전체 감사하는 총대의원회의와는 달리 학과학생회 대표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대표가 참가하여 총사임을 의결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동국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동국 학생 대표자 회의'를 운영하겠다고 총학생회 정·부회장의 탄핵소추권도 부여하는 최고의회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배준식=이따금씩 학원 해체론이 제기되는데 학생대표자 회의의 신설은 총학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폐지는 시기상조이며 다른 학생기부와 함께 역할 분담을 해나간다면 오히려 전체적 운영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이정만=현재 최고 의결 기구인 학생총회는 매시기 중요한 사안들이 대두될 때마다 폭넓은 인식각인이 전체적으로 학원해체와 관련 도가 낮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과학생과의 위상을 정립한 뒤 '전체학생대표자 회의'로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

수 있으므로 힘의 분산을 방지하자면 학원 위상은 제고해야 합니다.

▲강홍규=모든 의견 수렴이 과→단→총학으로 모아지는 '전체 학생 대표자회의'를 제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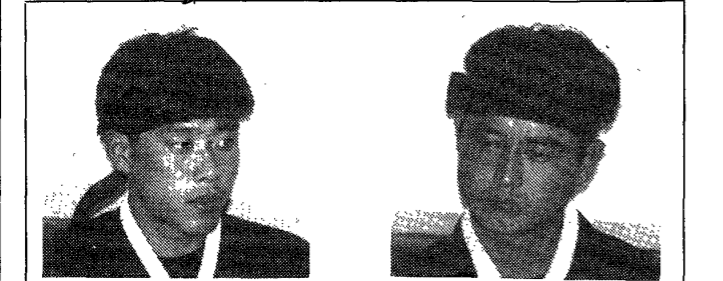
대학은 정치투쟁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각과학생회, 단과대 학생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역할분담은 필요하며 학원같은 기구는 학

위임받은 기구로써 '전학대회'가 일반 학우대중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자면 가장 기초단위로서의 임무가 과학생과에 주어지게 되며 과학생과는 파벌 정쟁자료를 통한 파벌 토문을 거치고 대표자적 권한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전학대회에서 의견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배준식=기호2번 이종헌

강순호 기호2번 이종헌

민주적 총·부총장 선출 및 민중운동과의 연대에 역점 둘 것



백대진 기호1번 강홍규

1재단2총장제로 경주의 자주권을 확보 할 수 있게 노력할 터

단결투쟁하고 한결을 나간 총학 건설의 포부를 안고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배준식=저희 기호 3번은 학교 내에 산재한 부정비리의 완전한 적결과 인백파벌을 혁파하는 등의 학원지주화 그리고 군사정권에 의해 분열 양상을 보여온 학생운동을 대중에 의해 결집시켜내는 총학생회 건설하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사회=세 후보 모두 지금까지의 총학에 대해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6대 총학을 나뉘도록 평가를 내린다면 어떠한지 말씀해주시죠.

▲강홍규=총학생회는 총체적 학생대투기구임에도 5대와 6대는 소수 운동권학생들의 독무대이거나 음모적 사업진행으로 일관 된듯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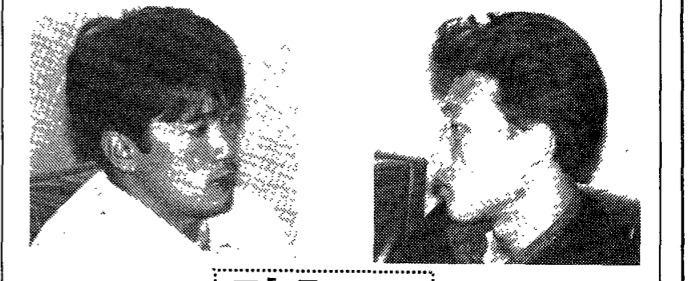
한한 자질의 사람을 동용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정만=에, 6대의 가장 큰 과제가 집행부 인선과정에 있어서의 암투였던 점을 감안 할때 기호3번의 제안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배준식=저 역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는군요. 인선과정에의 공개로 인해 파벌이 조장되는 폐단을 혁파해야겠지요.

▲강순호=우선적으로 전체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전체 학생대표자 회의가 상시화되어 과, 단과대의 유기적 연계를 담보함과 아울러 형식적 집회나 회의를 지양해, 내용성 있도록 지도의 질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총학생회의 구조적 혁신으로



배준식 기호3번 이정만

분열양상 보이는 학생운동을 대중의 힘으로 결집시켜 낼 터

중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강순호=무엇보다도 총장 및 부총장선출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학생 차원에서 '전학대회'에서 안을 마련, 민주적 총·부총장을 선출하는데 1번 학우의 의사를 반영시키며 경주캠퍼스의 서울캠퍼스 중추성을 벗어날 수 있기 위하여 부총장권한 강화 및 민주적 선출 제도안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2캠퍼스로서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일과 식당·매점의 직영화, 강의동 확보를 바탕으로 도서관 전용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배준식=지난 88년 학원·학과에서 일어난 성과물이 제대로 성사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통국인의 힘을 모아 지난해 성과물을 확실하게 정취함은 물론 도서관 전용화 및 24시간 개방 등에 역점을 두려합니다.

▲배대진=경주캠퍼스 독자성 확보가 시급하고 그 대안으로 1재단 2총장제를 도입하는 한편 현 부총장단을 개혁하여 전입금을 충족해 가는 것과 동아리방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듣고보니 경주캠퍼스가 2캠퍼스로서의 모습을 안고 있는데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2캠퍼스로서의 한계와 지역적 한계 극복은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강홍규=저희들은 대구 경북지역 학생투쟁 연합과 경주 포항 지역 총학생회연합을 준비하고 연구에 착수 했습니다. 그것들로 우리들이 굳건한 연대투쟁을 전개할때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 공동된 모습을 혁파하는데 역점을 두며 언제나 강고한 노학, 농학 투쟁을 수행하겠습니다.

▲사회=6대 선거때와는 달리 2캠퍼스보다는 지역 주변세와의 연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느낍니다. 연대 투쟁의 필요성을 청년학도의 역할에 비추어 말씀해 주시죠.

▲강순호=한국경제의 모순에 의해 민중들의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바 전민중과 민중운동을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중운동 담합이 지속되는 정세에서 그것을 혁명적으로 분쇄해내고 전교조 사수, 전노협 건설, 민중의 당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배대진=모든 변혁운동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반공' 지하는 학원운동의 대중화 속에서 민중운동 단안 분쇄와 전교조사수에 백관학도의 함께 진군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원정권의 간악한 담합을 분쇄해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끝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입장과 관점에 대해 누구라도 말씀해 주시죠.

▲배준식=이번 선거를 계기로 진정한 대학인다운 선거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일 각오이며 실현 불가능한 이른바 '조약'을 남발하는 결과를 방지 할 것 모두 힘써야 할 대안입니다. 또 누가 당선되면 총학을 아끼지 않고 당선자의 임무 수행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회=긴 시간 동안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선거 운동하시고 공경선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록·정리=김영진 기자)

시사영어학원

주 3일

'새벽반은 주 5일 수업'

월	수	금
화	목	금
화	수	금

편리한 요일로 3일만 선택하세요

英·日·中 TOEFL 600 GRE 2000

중강위편 · 종로2가 · 734-2442

아르바이트

학비를 벌자. 경험을 벌자.

넓게, 더 넓게 경험하며 더 큰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젊은 자생인에게 지금, 알찬 아르바이트의 기회가 왔다.

시간은 Free -, 수익은 Best - 스스로 학비를 벌 수 있음은 물론 대학시절동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진취적인 대학인에게는 짧은 기간동안 충분한 경비를 마련할 수 있는 최상의 찬스!

자! 이제부터 시작하자. 위대한 우리의 자력의 거울을.

15년 카드기입 피카소카드

연장직 전문 아르바이트

- 15일 활동으로 2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보장됩니다.
- 본사에서 기업체 거래선을 제공해 주어 연장직을 주문받는 업무입니다.
- 기업체 연장직 전문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가장 할 이익이 큼니다.
- 지금, 친구와 함께 시작하세요.

제조사: 피카소 카드

킹신업

JUNG WOO CO.

전화문의: (02) 797-2199 797-3199

운전을 배우시다

21년 전통·성실한 교육

- ① 드라이빙 마스터에 의한 시범차 교육
- ② 택시사 무료 운영
- ③ 대학생, 직장인단체 특별우대
- ④ 외국 (이민) 출국자 특별반형
- ⑤ 실습시간 자유선택
- ⑥ 통학버스 무료 운영
- ※ 연허소지자 시내운전선수

*** 컴퓨터 교육 시설 완비 ***

學校法人 新進學園

新進자동차학원

개강: 매주요일

수시접수 (야간·휴일도 접수함)

永登浦 學院	영동포 양정동 경인고속도로입구	0036~7 (633) 3962 3963
西部 學院	은평구용암동 신진공고 앞	(356) 2341~3
北部 學院	도봉구 번동 북부경찰서 뒤	(994) 2861~5

외국어 교육, 최고의 자부심

파고다외국어학원

66

외국어 학습 성공자에게 외국어 공부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구하면 " 제대로 외국어 배우려면 파고다 외국어학원에 다쳐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발견하게 된다. (특히 지식인 층에서) 이것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학원을 찾는 수강생들에게 하루하루 성취감을 주는 파고다학원의 모토가 강의시간 시간마다 진지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강 첫날, 최고의 교수진이 펼치는 명쾌한 강의가 외국어 공부의 자신감을 준다.

99

종로2가 파고다공원 건너편 흰빌딩

274-4000, 274-6821-2

I CAN DO

제도의 아쉬움 인물 통한 보완을

민주총장 선출 이제부터...호선 배제 여론 "상시적 간담회 통해 각계의견 폭넓게 수렴"

해설

총장선출제도가 지난 19일 확정됨에 따라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이 제도의 틀 속에서 민주적 방식에 의한 총장 선출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비록 이번에 마련된 제도가 3차간의 완전한 합의를 도출시킨 것이라고 보기는 미흡하지만, 3차간의 공동부문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선거를 진행하며 후보자의 공약, 개혁의지 등 선출 제도내용의 진정성 수정보완될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각 단위의 주체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에 관한 것으로는 구체적인 합의과정을 도출하지 못한 이유를 크게 4가지 부분으로 집약할 수 있다.

△재단호선방식을 배제하는 학원주체영역의 확보문제 △공정회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각 주체간 확인의업 △선관위의 역할부분에 있어 상시적인 3자 간담회를 통한 여론수렴기능의 극대화 △후보 자격에 있어 현 제도의 형식적인 면에서 좀더 발전, 후보자

의 질적자격을요건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등을 들 수가 있다.

총장선출때까지 민주적인 방식에 의거, 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명시화 한다고 할때 가장 대두되는것은 현 제도를속에서 이를 수행할수 있는 인물 선정이라 할 수 있다.

즉, 후보자의 성향에 따라 현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및 개혁의지, 재단혁신의 왕성한 욕구와 학자투 수행여부등이 평가로 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적이고 개혁의지가 투철한 인물을 천거, 그분의 정책에 적극 지지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한계는 어느정도 보완될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한편, 이와 관련 제도에만 급급하는 자가당착에 빠지지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려대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로 완전한 제도정리를 통한 민주적 총장선출을 고수하려다 결국 실패했던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 총장선출제도는 문교부의 사립학교법상 직선제 요구인 학생들의 공개적 참여를 통한 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속에서 마련된데, 이의 활용여부에 따라서는 법망의 테두리를 최대한 이용할수 있는 것임을 내포한 '비밀명기'일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 총장선출을 위한 첫



“중점선임의 이사장으로서의 영입”을 촉구하기 위한 학생들의 발걸음은 산속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해인사로 모여 들었다. '무는·부패재단 혁신'의 갈망이 뜨겁게, 뜨겁게 전해지고 있다. (글=지동철기자, 사진=유진준기자)

발은 이제 시작되었다.

그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은 각 주체간 논의과정속에서 합의를 도출시켜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어떤 한 주체의 방관자적 입장도 있어서는 곤란하며 방학전에 선거가 실시될때 이는 가능할 것이다.

그 역할에 있어 아직 미지수인 선관위의 활동반경도 유의 깊게 관찰, 문구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논의의 구조를 갖고 현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이만섭기자)

서울 동연체계강화 공동공약 경주 이국종·전남진조 당선

서울캠퍼스 제6대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에 기호1번 김태진(국문3)·이정아(일본3)조와 기호2번 임완승(산공3·야)·정희석(경영3)조가 출마했다.

경주캠퍼스 제4대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은 기호4번 이국종(원문3), 전남진(국문2)조가 지난 16일 오후 5시 도서관(4층 시청각실)에서 실시된 선거결과 당선됐다.

고시 합격생 왜 줄어드나

심층취재

89학년도 한해동안 사립고시, 외무고시에 각 1명씩의 합격자를 배출한 본교는 더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고시 합격자 증가가 단순해 그동안의 자족적인 민족에 그치지 보다는 학교체제의 명예라고 생각할 때 본교의 문제점은 명확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고 있다. 88년 1명, 87년 2명의 고시합격생을 배출하는데 그친 고시지도위는 연 1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특강료등에 지출되는 금액을 제한한 현재 운영에 급급한 실정이다. 특히 그해 출제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는 고시특강은 강사료가 있어 타학교와 비교,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는 우수한 강사진 확보에 결정적 타격이 되고 있다.

타학교의 경우 고시지도위가 총장직속기구로 거교적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는데 H대학의 경우 사립·행정고시, 기술고시 등 5백여명의 고시준비생과 지도교수3명, 조교9명 등의 요구에 따라 84년 건립당시 고시준비생 및 학생들의 반대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유가 시끄럽고 학생출입이 많은 현

주변소음등 위치 부적절 과감한 정책투자 절실해

위치에 지어지게 됐다. 현 규모는 21개의 방과 70여석의 열람실을 확보, 고시반28명, 회계사반 12명만이 입학한 가운데 시험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학이 고시장학생선발시험을 통해 입학한 비입실생 장학생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고시학사는 입실장학생의 경우 잠자리만 제공될뿐 식사는 자비부담을 하고 있다. 입실을 주관하는 고시학사의 이러한 열악한 상황은 부사장과 아르바이트생 2명이 학사의 모든일을 처리하는 것만 보아도 확연히 드러난다.

고시생을 지도하는 고시지도위원회는 법대학장을 위원장으로 지난 8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매학기 장학선발, 모의고사, 특강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시학사, 고시지도위, 학교당국이 상위 바이트생 2명이 학사의 모든일을 처리하는 것만 보아도 확연히 드러난다.

고시생을 지도하는 고시지도위원회는 법대학장을 위원장으로 지난 8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매학기 장학선발, 모의고사, 특강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미로
○...지난 14일 서초동 형사지방법원에서는 아인슈타인도 풀기 힘든 전대미문의 어려운 미로가 연출돼...
사건인즉 부정입학 혐의로 구속된 黃軫經이시장이 “能觀스님을 통해 李智冠총장에 게 기부금을 주었다”하고, 李智冠과 能觀스님은 이를 “모른다” 하니 돈받은 사람 따로있고 모르는 사람 따로

전경단합대회
○...한동안 조용하던 여의도에서 난데없이 전경 8천여 명이 집결, 단합대회(?)를 가졌는데...
지난 15일 여의도 개계 예정이던 ‘빨강보장 농민대회’를 헌 친봉쇄하

어서기 마련”이라고
짓법에 쓴은 정성
○...은방골 학술계 기간동안 학술강연은 썰렁함의 연속이었으나, 시내의 유흥업소에서는 대박부터 한창(?)이었다고.
중요한 학술강연장은 준비 부족과 출석점검 등으로 자리메꾸기식의 지출성까지 드러냄에 반해, 졸업생 환송

대총 의장에 안성준군
총회에서 1차투표를 갖고, 이어 다음날인 지난 16일 총대의 인회실에서 2차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유권자 2백3명중 1백8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92표, 반대 15표, 무효 3표로 당선되었다.
이번에 당선된 안성준군은

정부, 여의도 농민대회 대신 전경단합대회 열고 한숨 돌리지만...
있는 것인자...
부정입학의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지금 학교행정 실무자가 범정에 중인으로 출몰, 관련 여부 논란을 벌이고 있어 동학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은방골은 요즘 상징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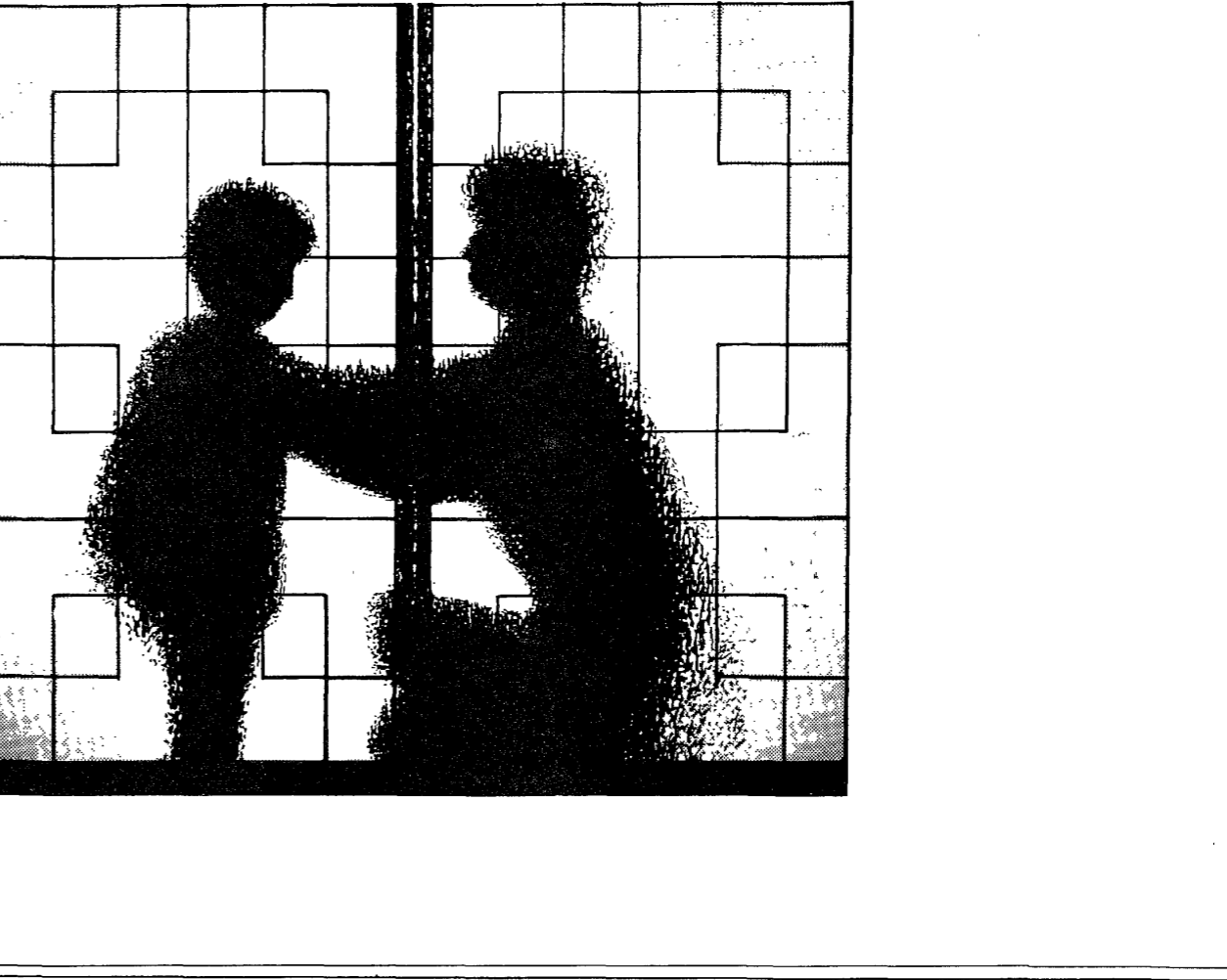
정되고 있어.
관 관계자는 예산관계로 협의중 이라고 말하지만 “저길은 다시 파려면 완공일이 지연될 테고 저음에도 공사를 해야 할텐데, 졸업식전까지 완공한다고 해 놓고 어느 해 졸업식때나 백상탑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한 말.
기 위해 당국은 무려 57개중 대 8천5백여명을 배치하는 각별한 배려(?)를 통해 결국 ‘작전성공’을 쟁취하고는 자축의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것이 그것...
“農者天下之愚民”의 착각속에 발광하는 자들을 보면서 상징길의 어느 농민 왈 “보리는 밟을수록 팽팡하게 일

‘경영환경’ 특강
27일 중소기업은행 초청 경영대학원 ‘경영환경’ 특강이 안성철 중소기업은행장을 초청해 ‘중소기업은행지원정책의 기본사상과 중소기업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오는 27일 오후 6시30분 동국관(L301)에서 열렸다.
한편 지난 15일에는 이용만(한국외환은행장)씨의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특강이 열리며 있다.

‘재단혁신’ 요구 이사장실 점거
경상대 학생회 농성 6일째
경상대 학생회는 ‘재단의 물적구조혁신과 민주총장 옹립’을 요구하는 켈기대회를 지난 15일 오후 2시30분 학생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관 앞에서 갖고 이사장실 점거에 들어가 오늘(22일)까지 농성 6일째를 맞고 있다.
지난 5월16일 재단측과 학생측이 합의한 ‘재단전임금 연간

큰 공부
고요한 곳에 천지가 크고 한가한 가운데 일월이 길도다. 만약에 제 분수에 평안할 양이면 도대체 유별난 생각보다 나은 법.
책상에 의지한 공부가 큰 것이지 장을 휘두르는 사업이야 낮은 거라네 봄가을에 흥을 타고 노닐어야 하기에 나갈 적엔 작은 수레와 아이를 쓰노라.
세상에는 대단한 일이 없건만 천하에는 영웅의 재주가 있다네. 다만 사람 얻기 어려울까 걱정이지만 도가 넓지 못하다 어찌 근심하리오.

靜處乾坤大 閒中日月長 若能安得分 若能別思量 隱几工夫大 揮戈事業卑 春秋賴乘興 出用小車兒 世間無大事 天下有雄才 惟恐人難得 寧憂道未恢



내 삶의 마당에 첫 눈이 내려...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그녀나 그것은 새로운 아침의 시작이었다. 하얗게 무너져 내리는 눈발 아래 이 땅의 슬픔을 본다. 시린 어깨 너머로 멀어져 가는 조국의 하늘을. 나 이제 그대 사랑의 눈길 한테 모아 새 땅위로 흩우며 울날릴 우리의 첫 눈을 기쁘게 맞이하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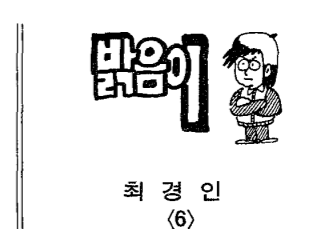
나태하고 불성실한 생활태도에서 벗어나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생애에 임할 것이다. 언론이 담보해야 할 사상과 이론을 바탕으로 기자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사명의 완수를 위해 분투정진 하리라.

영광한 심대의 마지막 내승이라 생각했다. 고귀하고 도도하러 왔던 보이기 위한 삶에서 「참 나」를 찾기 위해 다시 태어나는 판문(?)을 낫 뜨겁고 축축한 분위기에서 통과 5월20일, 신문사의 「요지말」을 익히는 수습이 되었다.

노력보다는 능력부족을 합부로 남 발하는 꼴불견과 고매한 진리의 상아탑이기를 거부하는 몸짓으로 폭에 대한 백의 논리가, 청의 독선이 흥의 독선으로 서로 아파할 때 해결의 실마리는 고사하고 기자로서의 무게 중심마저 잃어버리고 비틀거렸다.

참교육 운동이 전교조 결성과 합법성 쟁취투쟁을 근간으로 그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단의 연극계에서도 교육현장을 주제로 한 공연을 올리고 있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친구를 위하기 보다는 대학가는 묘약만을 증시하는 학교에 환멸을 느끼는 아이, 출세하기 위한 공부는 하기 싫다며 등교를 거부하는 아이들. 순수한 교육적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진선생의 모습에서 개별적으로 고립된 지식인의 한계를 느끼게 한다.



탈수습기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생활 1백80여일은 나에게 커다란 변화와 발전을 안겨다 주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기성찰과 변신 속에서 이후 활동기반이 될 이 지적 비판정신과 정치적 안목을 내출 수 있었다.

탈수습기

민주주의 그날까지...



김홍기 記者

동국의 오늘을 계몽의 벽에서 진단한 기사통치가 취재부의 테스트가 아닌, 내 눈앞에서 쓰레기통으로 공중분해 당하는 그 슬픔도 구태의연한 모습에 감추며 눈물을 참기 위해 서러운 하늘을 쳐다보길 몇 번.....

“지랄하네, 야 너 기사마작 다시키고 만지 하는거야?” “그래, 정신차리자” 선배의 신랄한 구박 이전에 생산성없는 탁상공론은 이젠 접어 치우려나.

“동대신문” 사랑한다. 사랑의 맹세는 짧고 진하다.

동국의 명예를 지키는 기자가, 그리고 조국의 통일과 민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청년으로서 진실만을 전하는 참빛 참소리가 되어 민주

정확히 지면에 담아내는 지칠 줄 모르는 내가 해야하고 취재를 위해 눈이 벌건 내가 해야한다는 것. 그런 인고의 시간들을 나는 복날 넘긴 개마냥 「혁혁」거렸다.

달레달레하며 빠진 호색가가 바라보는 일상에서 사물의 핵심을 파헤치는 기자가 되어 일선에 뛰어 들었을 때 느낀 반박, 계급투쟁, 노동해방, 조국통일.....

이런 낯선 의미들에 고뇌하기 시작했고, 허리 칼린 동강난 내 조국을 사랑하는 이 땅의 청년임을 부인하진 않았다.

무사안일과 나태함에서 벗어나 발전적 비판력이 빈틈없는 철저한 시각을 원하면서도 수습담기 위한

참교육의 희망을...



노블레스 소속 극단 '한강'에서 지난 18일부터 이대앞 신선극장에서 공연하고 있는 연극 '마지막 수업'은 그중 하나인데 무거운 주제와는 달리 보는 이로 하여금 진솔한 웃음을 머금고 관람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눈길을 끈다.

극단 '한강'은 지난 88년 창단되어 창단기념공연으로 노·사간의 대립을 그린 '대결'을 선보인바 있고 정기공연에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연극들을 자주 공연해왔는데 이번 공연은 특히 4년간의 교사생활을 경험한바 있는 연출가 박재홍씨

극단 한강의 「마지막 수업」

담배와 대마초의 흡연으로 이어지고, 담가야 음독자살을 기도하는등 건장을 수 없이 겪어만 가고, 진선생에게는 전교조 가입권유가 들어 오게 된다.

이 때를 맞추어 '교직의 신성함'을 앞세운 장학사의 회유와 압력이 시작된다.

출세를 위한 공부, 이를 통해 가난의 편에 서도록 만드는 교육의 황폐함에 위기의식을 느낀 진선생은 끝내 동료교사와 함께 전교조분회 결성을 구상하게 된다.

형사의 손에 끌려가면서 교문앞



수업 연극으로 극복되어진다. 또한 아이들에게 대한 교육적 열

통일의 심지 돋우어 불사르는 그날 위해 이시대 청년학도의 길을 가리니..

그러한 과정을 통해 주제로 서기 위한 나의 몸부림은 서서히 민중의 삶 속에 용해되어 가는 듯 했다. 신문사에서 보낸 6개월의 수습생활을 마감하고 정기기자로써의 새 임무를 부여받은 지금, 나는 미래에의 결의를 다진다.

오직 민중의 삶을 대변하고 민중의 의사를 수렴하는 불변의 정신을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한 발전, 동대신문의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 믿는다.

(문과대 국문과)

“동대신문”의 순결한 지면을 더럽히지 않겠다. 선배의 충고에 당당 오기와 분노를 심심한 맘으로 되갚기 위해 내 취재수첩을 든 손에 힘을 쥐는다.

(인문대 국문과)

진실만을 전하는 참빛 참소리가 되어 민주

위한 청년으로..

화제의 책

한국사회성격과 도시빈민운동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1할을 점유하고 있는 도시빈민의 이른적층 뿐만 아니라 직접 빈민들의 생활 속에 뛰어 들어가 함께 생활함으로써 식민지조국의 모습때문에 광범하게 존재하게 된 빈민들의 현실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독점자본·식민지적 한국사회 지적

특히 도시빈민운동이 운동권에서의 배제와 무관심속에서도 주체적인 투쟁의 실천으로 위상을 정립시켰으므로 도시빈민운동이 80년대 민족민주운동이 연이연 커다란 성과중의 하나란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례를 들었다.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

‘박노해의 삶의 철학’이란 부제를 달고 김우중대우회장의 자본철학인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에 대한 전면비판을 담고 있다.

인식과 실천

의 역경을 헤친 동약인의 모습이 웅지 지친 듯하다. 확신이 없는 듯하다. 수많은 ‘결사항전’의 결과가 ‘추억으로 남을 수 없다. 이제 눈앞에 놓인 파국은 ‘민주총장선출’이다. 한 대학의 총장이 어떠한 인물로 설정돼느냐에 따라 커다란 변화의 가능성이 좌

인간과 기술의 만남 - 테크노피아
人間・技術・未來

“青年의 條件”

身・言・書・判 그리고 또하나 世界를 보는 큰 눈

엠펙터 사람은 몸가짐(身), 말씨(言), 문필(書), 판단력(判)의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성은 이 시대의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세계를 보는 큰 안목이라는 또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생활문화의 창조를 위해, 미지의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이 바로 세계를 보는 안목이었습니다.

세계를 보는 큰 안목을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이 국제화시대에 온 인류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